

# 해외건설 - '700억 달러 수주의 새 역사 쓴다'

- 상반기에 350억 달러 돌파할 듯, 원전·고속철 등 노력 배가 -

김 태 엽 | 해외건설협회 정보기획팀장  
ktyup@icak.or.kr

**원** 전, 고속철도 등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업체의 수주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해외건설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모습이다. 2009년 말 UAE 원전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 6월 15일에는 터키 원전 건설사업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됨으로써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부쩍 높아졌다.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 참여를 위한 민관 합동의 노력도 활발하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2000년대 이후 우리 업체들이 주력해 오던 석유, 가스, 석유화학 플랜트 EPC 프로젝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술력과 금융, 정부의 외교력 등이 복합되어 경쟁력을 발휘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분야이다.

## 상반기 수주, 작년의 3배 수준

2009년 우리나라 해외건설산업이 수주 급감의 우려를 안고 시작했다면, 2010년은 UAE 원전 수주가 계약 실적에 반영되면서 어느 때보다 큰 기대와 함께 출발했다.

2010년 6월 10일 현재 해외건설 수주는 331억 달러로 전년 동기의 3배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미 수주가 확정된 프로젝트가 100억 달러에 이르는 등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9년 상반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이어나고 있다.

수주 금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중동에서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244억 달러를 수주함으로써 2008년 말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 편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업체들의 전체 수주에서 중동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60% 내외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경제 위기로 대부분 국가들에서 투자가 감소하고 프로젝트 추진이 중단되면서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아졌다. 올해는 2009년 말 수주한 UAE 원전 공사 계약 금액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UAE, 리비아, 쿠웨이트에서 대형 가스 플랜트 및 주택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아시아에서도 69억 달러를 수주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수주 금액이 증가함으로써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 각각 13억 달러를 수주하여 계약 금액이 급증했으며, 인

지역 및 공종별 수주 실적

(단위: 건, %, 백만 달러)

지역	2009. 6. 10		2010. 6. 10		공종	2009. 6. 10		2010. 6. 1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25 (100.0)	12,186 (100.0)	220 (100.0)	33,110 (100.0)	계	225 (100.0)	12,186 (100.0)	220 (100.0)	33,110 (100.0)
중동	48 (21.3)	7,665 (62.9)	44 (20.0)	24,399 (73.8)	토목	39 (17.3)	2,465 (20.2)	22 (10.0)	937 (2.8)
아시아	147 (65.4)	3,332 (27.3)	141 (64.1)	6,932 (20.9)	건축	51 (22.7)	4,476 (36.7)	69 (31.4)	2,327 (7.0)
태평양, 북미	5 (2.2)	80 (0.7)	12 (5.5)	501 (1.5)	플랜트	19 (8.4)	4,829 (39.7)	38 (17.3)	28,335 (85.7)
중남미	8 (3.6)	125 (1.0)	4 (1.8)	675 (2.0)	전기	23 (10.2)	135 (1.1)	16 (7.3)	276 (0.8)
아프리카	12 (5.3)	633 (5.2)	8 (3.6)	308 (0.9)	통신	0 (0.0)	16 (0.1)	5 (2.3)	436 (1.3)
유럽	5 (2.2)	351 (2.9)	11 (5.0)	295 (0.9)	용역	93 (41.4)	265 (2.2)	70 (31.7)	799 (2.4)

자료 : 해외건설협회.

도에서도 10억 달러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 수주에 성공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LNG 인수기지를 포함하여 총 9.5억 달러를 수주했으며, EDCF 공사 등 토목, 건축 공사를 위주로 베트남에서 7.2억 달러를 수주하여 아시아 주요 시장의 자리를 지켰다. 이 밖에 중남미에서는 6.8억 달러, 아프리카에서는 3억 달러를 각각 수주하고 있다.

공종별로는 작년 말 수주한 186억 달러 규모의 원전 실적이 반영되면서 플랜트가 283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플랜트 공종은 최근 우리 업체들의 수주가 중동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가스전 개발, LNG 처리시설 등 가스부문에 5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예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했다. UAE 원전 이외에도 미얀마, 인도, 투르크메니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각각 10억 달러 이상 대형 발전소 및 가

스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토목과 건축 공종의 경우 각각 9억 달러 및 23억 달러에 그치고 있어 아직 본격적인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우디, 카타르, 리비아 등 중동 국가들과 함께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도로, 주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주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중동 국가들에서 대형 병원 및 항만 프로젝트의 수주가 확정되어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교량, 도로, 복합빌딩 등의 수주가 임박해 있어 앞으로 수주 금액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용역부문은 사우디의 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을 포함한 몇 건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한 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주요 해외건설 진출국가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으로 수주 전쟁으로 비화될 만큼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도 국내 시장의 전

망이 크게 밝지 않다는 인식하에 최근 앞 다투어 해외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우리 업체간 경쟁도 예상롭지 않다.

이러한 경쟁 심화로 발주처에게 보다 유리한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에는 유럽 경제 위기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사이 일부 유럽 업체들의 저가 공세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하반기에도 안정적 증가 기대

2010년 하반기 해외건설 수주는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우리 업체들의 주력 시장인 중동 지역의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가 전망이 긍정적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작년 2월 배럴당 30달러 중반대에 머물던 국제 유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2010년 4월 배럴당 87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으나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와 경기 모멘텀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70달러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다.

하지만, 중국, 인도 등 개도국에서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 기관들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 JP모건, EIA 등은 2010년 국제 유가를 배럴당 75~90달러로, 2011년엔 85~108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가스 관련 프로젝트는 물론, 원유 고갈 이후를 대비한 각종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여기에다 이미 경제 위기 이전 수준으로 수주를 회복한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발주 재개도 수주 전

망을 밝게 하고 있다.

최근 그리스로부터 시작되어 국제적인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남유럽 금융위기는 유럽연합(EU)과 IMF 등이 유로존(Euro Zone)의 금융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남유럽의 재정 문제는 국제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여 개도국의 각종 사업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융위기가 우리 업체들의 전반적인 수주 확대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업체들의 수주는 정부 재정이 건전한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8년 말 이후 대형 개발사업의 추진을 유보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불구하고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한 지난해의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

### 올 한 해, 700억 달러 규모 수주 전망

수주가 유력한 프로젝트의 계약 네고가 길어지면서 2010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는 35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사우디에서 16억 달러 규모의 민자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가 추가로 확정되는 등 6월 현재 4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LOA가 발급되어 있고, 입찰 결과 최저찰을 한 프로젝트도 5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만간 수주 금액은 4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계약 예정 프로젝트 물량이 100억 달러를 넘고 있고, 입찰 결과를 대기 중인 프로젝트가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어 향후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현재 원전, 고속철도, 주택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활동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연말경 700억 달러대의 수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국제 유가의 상향 안정과 함께 사우디, UAE 등을 중심으로 중동에서 대규모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부 정유공장을 포함하여 사우디에서만 20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입찰이 진행 중이며, UAE에서도 70억 달러 규모 공사에 대한 수주 활동이 진행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할 전망이며, 경제 발전을 위한 주택, 인프라 개발 수요가 많아 향후 투자 개발형 사업이 재개될 경우 대규모 수주가 가능한 시장이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브라질 고속철도, 콩고의 패키지딜형 인프라 개발 등 대규모의 사업 참여를 위해 민관 합동의 수주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나에서는 주택 개발사업 참여 추진이 한창이다.

### 시장 주도권 확보가 관건

해외건설에 대한 우리 업체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해외건설에 대한 관심 증가는 최근 몇 년간 진행된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일부 중견 주택업체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국내 건설시장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과 함께 보다 큰 시장에서 먹거리를 찾아야겠다는 전체 건설업계의 중장기적인 관점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

최근 남유럽 금융 위기와 시기를 같이 해 유럽 업체들의 전략적 수주 활동이 증가하는 분위기고 일본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수주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 업체와의 경합에서 이탈리아 Saipem이 2개 공구를 수주한 UAE 가스전 입찰 결과를 남유럽 경제 위기로 인한 유럽 업체의 전반적인 가격 경쟁력 상승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의 생존 관건은 시장 주도권 확보에 달려 있다.

우리 해외건설이 국제 경쟁 시스템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확보하자면 도급 공사 위주의 수주전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고부가가치 해외건설 공종을 발굴하여 금융과 연계한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와 함께 특화된 기술과 금융 동원 능력 강화를 통하여 수주 시장과 대상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가는 것만이 냉정한 국제 경쟁 시장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CERIK